

近代 日本의 '地域'과 '아시아' -고베(神戸)지역의 '청국(인)' 인식을 중심으로-*

류 교 열**

Understanding 'Asia' of Modern Japan in Korea

Kyo-Ryul, Ryoo

<목 차>

- | | |
|---------------------|-----------------|
| 1. 서론 | 4. 문명개화론 |
| 2. 청국(인)에 대한 인식(I) | 5. '아시아'에 대한 인식 |
| 3. 청국(인)에 대한 인식(II) | -결론에 대신하여 |

제1장 서론

근대 일본의 개항장 중의 하나였던 고베(神戸)는 <표-1>과 같이 개항 이래 무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1880년대 후반에는 요코하마(横浜)와 겨루는 일본의 2대 무역항으로 부상했다. 특히 고베에는 외국인거류지¹⁾뿐 아니라 그 외곽에 일본인과 혼주하는 외국인잡거지도 있었다. 잡거지에서 외국인은 토지와 가옥을 빌리거나 실질적으로 매입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요코하마에는 없었던 청국인 거주구역인 南京町이 성립하는 등, 내외인의 잡거구역이 형성되어 외국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²⁾

* 이 논문은 2002년도 (재)한국해양대학교 학술진흥회 일반연구지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조교수

1) 일본의 '거류지'는 마치 '한 국가속의 작은 외국(imperium in impeiro)'과 같은 중국의 홍콩·텐진(天津)·한커우(漢口)와 같은 조차지(concession)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차지의 시스템은 외국 정부가 토지 전체를 조임(租賃)한 후, 이를 분할하여 자국민과 타 국민에게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조계(settlement)는 외국인이 거주하기 위해 직접 상대국의 정부와 인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 일본의 경우 1858년에 맺어진 미일수교통상조약에서 나가사키·요코하마·고베 등의 개항지에 settlement가 설정(1899년에 폐지)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거류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개항장이란 내국인이 다양한 형태로 그것도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외국인을 접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외국 영사와 국내 관료간의 정치적 교섭, 외국 상인과 국내 상인의 교역, 외국 상관에서 내국인이 일하며 접하는 외국인 주인, 외국 선박을 이용하는 내국인과 외국 선원과의 교류, 유입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사이의 교류와 충돌, 외국인과 내국인 여성간의 성적 교류 등, 제각기 다채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교류가 매일같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출되었던 고베의 대외인식, 특히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고베의 언론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내의 여타 개항장과는 달리, <표-2>의 고베 거류 외국인수와 <표-3>의 고베항의 지역별 무역액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지역과 특히 관계가 깊은 개항장인 고베의 '아시아'인식을 고찰하는 것은 근대 일본의 '아시아'인식을 생각하는 데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이 시기는 근대 일본의 대외관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시바하라 다쿠지(芝原拓自)는 청불전쟁 이후 중국과 조선에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서구열강의 배후에서 열강의 일익을 담당하며, 동아시아에서 '소형 제국주의'로 부상하려는 전망을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동아시아의 위기라는 작위를 통하여 국민의식으로 정착시켜 민간의 신문 등 논조도 정부와 같은 방향을 취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류 제국주의국'인 서구에 대한 '소형 제국주의국'이라는 열등감과 그 대극에서 일어나는 '개화 일본'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된다는 식으로 조선과 청국에 대한 강한 경멸의식을 태동시켰으며 정착시켜 나갔음을 밝히고 있다.³⁾ 그러나 이처럼 단순 명쾌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개과정의 구체적인 실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2. 청국(인)에 대한 인식(1)

먼저 당시 고베의 유력 일간지인 『神戶又新日報』⁴⁾(이하『又新』으로 약칭)의 대외인식 중에서도 가장 기사가 많은 청국(인)에 관한 인식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又新』은 1887년 6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 게재한 「支那渡航論」⁵⁾에서 체계적으로 청국과 청국인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거기서 『又新』은 양국간의 현상을 漢字를 사용하는 '同文' 국가이며, 유교 등 문화에도 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갈등이 심함을 지적한 후,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있다. 하나는 서구열강이 아시아 지역을 강점하려는 현 시점에서 양국이 관계를 돈독히 하여 '동양의 강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어부지리를 서구열강에게 부여하고 말 것이라는 정치적인 연합론이다. 다른 하나는 청국의 시장이 풍부하고 광대하므로 교역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청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3) 芝原拓自『對外觀とナショナリズム』(『對外觀』日本近代思想史大系12, 岩波書店, 1988년).

4) 『神戶又新日報』는 자유민권운동과 국민참정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884년(明治17)년 3월 19일에 官許를 받아 5월 11일에 제 1호를 창간했다. 그리고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국제관계의 악화, 特別高等警察法에 의한 언론통제와 신문에 대한 통합정리로 인하여 1939(昭和14)년 6월 30일자로 폐간했다. 창간에서 폐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19,131호를 발행했다. 메이지(明治)중기의 호고현(兵庫縣), 특히 고베시의 유일한 일간신문으로 지역사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西松五郎『神戶又新日報』略史(神戶史學會編輯『歴史と神戶』제 18권, 제 2호, 1979년 4월))

5) 「支那渡航論」은 『又新』에 1887년 6월 12?15일(12?15일)에 연속해서 게재된 사실로 당시 청국과 일본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방안과 그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청국으로 도항했는데 그 대부분이 상인과 창부, 직공노동자 등으로 현지에서 빈번하게 청국인과 충돌하며 서로를 '화노(和奴)', '돈미노(豚尾奴)'라 부르는 등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다. 『又新』은 이를 지식인='士'의 도항이 적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보고, 뜻있는 유력자가 청국에 도항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전략) 지나 인민의 성질은 비굴인순(卑屈因循)하다며 깔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 특성인 인내력과 연구력을 바탕으로 만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좀처럼 방심할 수 없는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 정부는 수 년 전 크게 각성한 바가 있어 내치와 외교의 진취적인 개량 방침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대한 바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군비(軍備)와 같은 외관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가히 팔목할 만 하다. 촉광위성(燭光威聲)사이에 영국과 프랑스에 당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지나에게 커다란 경계심을 가져다주어 오늘날에는 군대개혁과 군함 건조 등은 물론 서구의 사관기술사를 고용하여 일진월보(日進月步)하고 있다. 그 결과는 베트남전에서 프랑스와 교전을 유리하게 이끌어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전선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를 진작시켜 서양의 학술을 익히게 하는 등은 우리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식산흥업에서도 인민들의 노력을 잘 알 수 있다. 제조와 해외수출에서 거액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지나인은 광대한 토지에서 태어난 까닭에 세계를 마치 한 나라를 보듯 하며, 지구상에 인류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구석구석 안가는 곳이 없다. 이들 노동자가 가지고 돌아가는 재산은 자국의 부강에 일조하고 있다. 지나인이 거의 하나의 주의(主義)를 가지고 있는 듯 타국인들의 경멸과 조소에 아랑곳 않고 초지일관 자신들의 업무에 노력하는 점은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우리 일본인들은 외모에 치장하는데 치중하여 서양인의 조소를 피하려 하고 있으며 구화풍조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 한다. 미국인들이 뭐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만 하며, 독일인이 뭐라 하면 또 그것을 고치려 할 것이다. 이는 만사를 서양이 말하는 대로 아무런 자의식도 없이 따르기만 하려는 태도이다. 이 때문에 외관상의 진척은 있는 듯이 보이나 그 실재는 거의 미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경멸당하면서도 사업을 날로 충실히 해나가는 것에 비한다면 과연 무엇이 득이며 실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나는 장래에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⁶⁾

여기서 청국은 현재 군사상으로나 경제상으로도 업신여길 수 없는 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나아가 장래에 청국인이 지니는 능력은 더욱 발휘되어 성장할 것이라는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철도건설을 통하여 향상된 경제력은 청국으로 하여금 '동양에서 비견될 수 없는 국가'가 되게 할 것이며,⁷⁾ 추진 중인 서양식의 군제개혁을 바탕으로 청국이 일본의 이해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⁸⁾이라는 것은 이 시기 『又新』의 청국에 대한 기본 인식이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 청국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입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프랑스가 지나를 공격하는 기제도 모두 실리적인 과학의 원칙을 전제로 제조된 것이다. 군함과 군수물자는 물론, 의복과 식량에 이르기까지 실험상 이익이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지나가 사용하는 군기는 실용적이기보다는 허식적인 것이며, 비록 군사가 백만이라 하더라도 실전에 임하면 십 이만의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총기는 수 십만정이 있다하나 대부분이 오늘날의 전투에 부적합한 재래식 무기이다. 그리고 군함의 대부분도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 파손된 채 방치된 것이 있다고 한다.⁹⁾

6) 이는「支那渡航論」의 사실 중에서「支那の後來甚畏るべき事」라는 주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여기서 「又新」은 외국인의 청국인에 대한 멸시의 배경에는 청국인의 근면과 저축 정신이 그들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점은 흥미롭다.

7) 「又新」1886년 3월 31일의 사실 「清國將に羽翼を生せんとす」.

8) 「又新」1886년 10월 15일의 사실 「支那陸海軍の改革」.

이상은 「朝野新聞」의 기사로 중앙의 대신문들이 모두 한결같이 청불전쟁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 비해, 「又新」은 인식이 달리했던 것이다.

즉 청불전쟁에서 청국의 군사력이 프랑스에 대항할 만한 것임과 서구의 것을 배워 일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支那渡航論」에서 청국과의 우호관계를 제시한 논조는 1886년부터 90년 초에 걸쳐 일관된 것이었다. 86년 8월에 나가사키(長崎)에서 발생한 일본 순사와 청국 수병간의 난투 사건에 대해서도 중앙지를 비롯한 여타 신문들이 격렬하게 청국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又新」은 사실 「長崎事件」¹⁰⁾에서 '원래 청국과 일본은 함께 동양의 제국으로 양자가 서로 의존하고 도우며, 외부=서양의 업신여김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난투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 같은 상호간의 위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간의 사소한 분쟁은 언제나 있는 법으로 사건을 평화적으로 매듭지을 것을 주장했다.¹¹⁾ 더욱이 89년에 행해진 청국의 황제 결혼식 때에도 양국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¹²⁾

이와 같은 「支那渡航論」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국인에 대한 평가는 개항장이라는 고베의 특수한 공간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연안과 외국 항로에 대한 장악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들 수 있다. 86년 초부터 日本郵船과 리홍장(李鴻章)계의 청국 招商國이 청국·일본간의 정기항로 개설 문제를 놓고서 경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又新」은 日本郵船이 경영상 招商國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게재하였다.¹³⁾ 그러나 招商國은 동년 3월에 일본 정부의 배제 정책으로 항로 개설을 단념, 日本郵船이 나가사키-텐진(天津)간의 정기항로개설 방침을 내놓았다.¹⁴⁾ 이때 「又新」은 외국 선박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招商國에 대항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인에게도 불편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재고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시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일본 상인의 청국에 대한 상품 직접 판매 가능여부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又新」은 텐진에 일본도기 판매소를 설치한 것¹⁵⁾과 일본주(日本酒)판매 추진계획¹⁶⁾, 그리고 청

9) 「開化と開化の戰爭」(「朝野新聞」1884년 9월 28일, 앞의 책 「對外觀」p.306). 또한 청불전쟁을 청국의 정치체제와 관련시켜 일방적인 패배로 보는 견해는 이 시기 중앙의 대신문들의 주류를 이루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對外觀」의 Ⅲ-12, 13, 14 사료에 대한 해제를 참조하기 바람.

10) 「長崎事件」1886년 8월 21일자.

11) 「日清の關係遂に如何ん」1886년 9월 1일자 사설.

12) 「清國皇帝の大婚典禮」1889년 2월 27일자 사설.

13) 1886년 1월 29일자 사설.

14) 일본 정부의 배제정책은 일본인이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수속을 보다 복잡화하는 것이었다. 효고현(兵庫縣)은 86년 2월 3일, 종래 고베구청에서 행하던 외국선승인증명서(外國船乘込證明書)를 받기 위한 수속업무를 갑자기 현청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동안 대리인을 통해서도 해결되었던 수속 절차도 본인이 직접 현청에 가야만 가능하게 되었으며, 심야에도 수속이 가능하던 것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인 중에는 불편한 외국 선박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대거 감소했을 것이며, 당연히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상국은 적지 않은 영업상의 타격을 받아 영업을 포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 1886년 9월 2일자

16) 1888년 10월 6일자.

국에 대한 성냥 수출 상황¹⁷⁾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상인에 의한 직접 판매는 결코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일본 상인이 상하이에서 높은 생활비와 낮은 이자로 인하여 상행위가 어려우므로 상하이에 출장하기보다는 고베와 나가사키 등에서 무역을 하는 편이 보다 유리함을 지적하고 있다.¹⁸⁾ 또한 청국인을 어리석다며 경멸하는 일본인들이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청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¹⁹⁾

또한 고베에서는 86년 무렵부터 잡거지 내에서 성냥공장을 경영하는 청국인 황권엔(廣駿源)과 오사카효교점부목제조동업조합협의회(大阪兵庫摺付木製造同業組合協議會)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 이듬해 11월말에는 오사카와 고베의 성냥동업조합(燐寸同業組合)이 외국인 공장 철수를 의무성에 진정할 것을 계획하기까지 하는 사태로 발전했다.²⁰⁾ 『又新』은 외국인 제조자와 동업조합 사이의 담판을 12월 4·5·6·7·10·11일의 5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²¹⁾했는데, 여기서 청국인이 경영능력상에 있어서 일본인을 능가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도 일본인보다 청국인 쪽이 앞서 있다는 의견도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우리들은 오로지 상업에만 마음이 있으므로 상업사회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극히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언제나 눈앞에 보이며 빈번하게 들려와 쉽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한가지 사안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등사회의 인민이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처로 하여금 몸을 팔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서구인과 지나인에게 몸을 파는 일본의 부녀자들은 이루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 땅에 까지 떠돌아다니며 가장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이러한 천업을 행하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인을 '찬찬(チャンチャン, 이는 청국인을 돼지꼬리라 경멸하여 부르는 차별어임...류교열)이라 부르며 심하게 경멸하지만, 사실 청국에서 우리 일본인들이 청국인들로부터 받는 경멸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고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원인이 일본의 부녀자가 청국인의 외첩(外妾)이 되어 청국으로 도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청국의 부녀자가 일본인의 외첩이 되어 일본으로 출가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데 있다고 한다. 이처럼 청국인을 위해 도덕성과 염치는 물론 애국심까지 버리는 일본인의 작태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체(國體)에 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건대 이 글을 읽고 앞으로 모두 정당한 혼례를 거쳐 정처(正妻)가 되었으면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외국인의 외첩이 된 자들에게는 실로 견딜 수 없는 중세를 부과하여서라도 이러한 폐습을 고쳐야 할 것이다. 또 공사관·영사관 등에 근무하는 자들의 가족 이외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본 부녀자들의 해외도항을 엄격하게 금해야 할 것이다.

17) 1888년 3월 18일·22일자

18) 1888년 7월 7일의 사설「支那貿易」

19) 1886년 10월 26일자 平田鶴山の 奇書. 고베에서 청국인 무역상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대함에 대해서는 籠谷直人「アジアからの「衝擊」と日本の近代-中國人貿易商の「團結力」に注目して-」(『日本史研究』244호, 1991년 4월) 및 「上海ネットワークの中の神戸-外國綿製品を運ぶ中國商人-」(『年報近代日本研究』14, 1992년 1월)을 참조.

20) 1889년 11월 29일자.

21) 이 분쟁에 관해서는 「新修神戸市史」歴史編Ⅳ, 近代・現代(神戸市, 1994년 1월)의 P.84이하를 참조. 또한 이 시기 성냥공업에 대해서는 杉本俊宏의 「明治前期の日本マッチ輸出と「領事報告」」(角山榮編「日本領事館報告の研究」, 同文館, 1896년)을 참조.

기서(奇書)형태로 게재된 이 내용은 고베의 상인이 개항장에서 직접 보고들은 문제로 일본인 창부와 '외첩'을 들면서 청국인과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논설에서 개항장인 고베라고 하는 공간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又新』에서는 이후 이 밖에도 한국과 호주, 그리고 홍콩 등지의 일본인 창부와 '외첩'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²²⁾

이처럼 청국(인)에 대한 고베의 인식이 당시 중앙의 인식과 다른 이유는 개항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일상적이고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외국인=청국인을 접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그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3. 청국(인)에 대한 인식(II)

『又新』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면과 군사적인 면은 물론 윤리적인 면에서까지 일본인보다 우월한 청국(인)을 결코 앞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 논하면서도 동시에 청국인을 멸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잡거지 내의)청국인 중에는 매일같이 보따리를 어깨에 걸치고서 시내의 민가를 기웃거리다 여차하면 계타(下駄)한 짝이라도 훔칠 듯한 형세의 '찬찬'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가짜 산호 구슬도 처음에는 1엔에서 2엔까지 부르다가 나중에는 불과 45전으로 깎아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지 않을 때 아예 그 자리에 눌러앉아 괴롭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²³⁾

그리고 88년 12월 30일에는 청국 상인 수명이 일본인 청년을 이유도 없이 집단 구타하여 경찰이 출동, 청국상인들을 청국 이사부(理事府)로 인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又新』은 청국인들의 무법성과 난폭성을 강도 높게 고발하고 있다.²⁴⁾ 또한 이듬해 9월에는 청국 상인이 일본인 맹인을 속여 금전을 갈취한 사건을 보도하며 '교활한 청국인'의 실상을 폭로했다.²⁵⁾

사실상 고베 잡거지의 경우, 가게를 차리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서양인이 약간 명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주택만을 가지고 있을 뿐, 영업행위는 거류지 내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에 비해 청국인의 경우를 보면 거류지에서 영업하는 자는 극히 드물며, 대다수가 잡거지 내에 거주하며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²⁶⁾ 그리고 잡거지에서 이

22) 호주의 일본인 창부에 대해서는 1888년 3월 3일의 「海外出稼女職業を營む」, 조선의 일본인 창부에 대해서는 동년 5월 5일의 「朝鮮仁川通信」과 7월 22일의 「仁川港に於ける邦人の職業」등의 기사가 있다. 그리고 홍콩의 일본인 창부에 대해서는 1889년 6월 26일과 27일에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의 투고「出稼婦人に就て所感を陳ぶ」와 동년 8월 16일의 「再び出稼婦人に就き所感を陳ぶ」가 있다.

23) 1887년 5월 15일자

24) 1888년 12월 30일자

25) 1889년 9월 16일자.

26) 89년 2월 1일에 효고현이 외무성과 대장성에 고베 잡거지에 거주하는 청국인의 연초 소매영업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외무성은 5일에 다음과 같은 훈시를 내렸다.

본국이 외국과 조약 하에 개항장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재류를 허가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무역과 통상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외국인이 본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며 본국의 세수권(稅收權)에 심하게 손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들이 일삼는 아편과 도박 등을 단속하는 문제로 양국 관민 간에 분규도 종종 발생했다.²⁷⁾

이상에서 본 사례는 모두 고베에 거주하고 있는 청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회면에서의 인식 경향은 청국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88년 7월 20일에 상하이에서 일본의 수병과 거류지의 청국인 경찰이 충돌하여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又新』의 기사를 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상하이의 공동조계 내이므로 상대가 서구열강인 만큼 '청국 정부처럼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제기할 우려는 없으며, 사리에 맞게 시비를 결정할 문명국의 담판'이 될 것임을 논하며, 청국을 도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로 혹평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의 경쟁 상대이며, 서로가 동양에 속하는 국가로서 우호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서양열강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평가와는 반대로 사회면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청국인과의 접촉에 바탕을 둔 멸시의식이라는 청국 및 청국인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란히 지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인식은 잡거지에 거주하는 청국인의 대부분이 멸시를 당할 만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인의 조소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업무에만 정진'하는 점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멸시의 대상으로 청국(인)을 각인시켜 나갔으며, 후자는 청국인의 뛰어난 특성으로 일본(인)을 각성시키기 위한 경쟁상대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국 및 청국인에 대한 멸시와 경쟁상대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각각의 기사를 보면 분명 상반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두 가지 요소는 정합적으로 한데 얽혀 청국 및 청국인 전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시바하라는 갑오농민전쟁 이후의 청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청국을 무능과 부패라는 냉혹한 청국관과 멸시의식'이 일본 국내에 전파되어 만연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又新』의 청국관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멸시의식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라는 청국(인)에 대한 '공포감'이 민족적인 감수성을 자극한데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문명개화론

『又新』이 청국(인)을 경제·군사적으로 일본의 강력한 경쟁상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

당연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지된 물품을 매매하거나 또는 그밖에 본국의 법률을 어기는 자가 아닌 이상 이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이처럼 정당하게 가게를 개설할 경우 조약상 영업이 허락되는 지역은 거류지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의 영업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고베의 잡거지는 거류지와는 다르나 종래의 관습상 외국인의 영업이 거류지와 동등하며 잡거지 내에 관해서 영업금지 조치까지는 내릴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27) 오사카의 잡거지는 가톨릭 교외용 부지의 무기한 차지계약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가옥을 빌리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고베 잡거지의 경우는 약속상 외국인이 일정 구역 내에 토지와 가옥을 차입하여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의 영대차지(永代借地)도 고베 야마테(山手)부근의 주택 이외에 고베시 중심의 상업구역에도 산재하고 있었다. (앞의 책 『開市開港の研究』, p.127)

음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서 『又新』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일까.

서양의 일반 인민은 일본의 현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동양의 극단에 일본이라는 독립국이 있다는 사실조차 상호의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화물을 보더라도 지나의 제조에 관련된 것이며, 심하게는 일본인이 유럽에 도항하여 시가를 왕래함을 목격하고도, 더욱이 변발을 한 지나인 복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인과 동일시하여 '청노(淸奴)'라 부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실로 일본 인민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서양을 여행하는 자가 언제나 개탄하는 점이다. 일본이 약소국이라서 서양 인민의 생각 속에 자리하기 어렵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으나, 일본이 점차 개명부강의 영역으로 나아가 문명제국과 동등한 교제를 이루게 된다면, 그 나라 일반 인민의 머리 속에 '동양의 극단에 일본이라는 제국이 있으며, 물론 이는 지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립국으로 그 인민은 일진월보(日進月步)문명의 권역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식의 생각이 새로 생겨날 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즉, 그 방법은 서구열강으로 하여금 일본을 문명과 국력에서 열강과 동등한 국가로 인식하게끔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이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조약의견서 속에서 밝힌 "단지 이는 우리 제국과 인민을 변화시켜 마치 서구 열강국과 그 인민과 같게 하는데 있을 뿐이다. 즉 이를 잘라 말한다면 서구와 같은 새로운 제국을 동양의 전면에 만들어 내는 데 있다는 것뿐이다."²⁸⁾고 하는 서구주의적인 신제국 형성이라는 논의와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又新』의 견해는 문명화의 내용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독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풍속과 습관이 점차 문명적인 서구 풍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은 우리들이 크게 만족하는 바이다. 돌이켜 보건데 종래 우리나라의 문명이란 정치적 문명으로 사회적 문명이 아닌, 말하자면 부분적인 문명으로 전체적인 문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대세는 점차 사회적 문명, 즉 전국 인민의 의식주의 개량을 보기에 이른 것은 일본의 문명사에 특필할만한 일대 진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인사들은 과연 배워야 할 문명의 정당한 순서를 따른 것일까. 아니 야회도 문명이며 무도회도 문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유희를 만끽하는 것도 일국의 실력이 그 정도의 영역에 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한 실력을 갖추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실력도 없이 마냥 문명국의 문화에 심취하여 다른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서 오히려 문명에 몰입하는 것을 우리는 문명광(文明狂)이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러한 발광에 가깝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나라 관민의 거동을 문명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²⁹⁾

28) 앞의 책『對外觀』, p.64.

29) 「日本近時の文明狂に關し支那政治家の感情如何」, 1888년 5월 14일의 사설.

여기서 문명을 '정치적 문명'과 '사회적 문명'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히 전국 인민의 의식에 관한 '사회적 문명'의 완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 실을 추구함 없이 무모하게 것 모습만을 추구하고, 안을 돌아보기보다는 오로지 바깥만을 장식'하려는 정부의 문명화 정책(=歐化主義)이 청국의 정치가로 하여금 '천박하고 경솔하여 일본을 경멸하는'요인이 되어 '지나 관민의 조소를 사교'있음을 비판했던 것이다.³⁰⁾

전국 인민의 구체적인 생활규범까지도 문명화할 필요가 있다는 「又新」의 철저한 '사회적 문명화론'은 크리스티교의 국내적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가져다주었다.

오늘날 서양문명의 주의를 알고자 한다면 우선 각각 그 나라에 유행하는 종교의 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서양의 학문과 기예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 그곳에 가서 정치와 사회백반을 관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현재 완전히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문명이 진보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교를 접하여 그 주의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민이 최근에 기독교를 신앙하는 자가 유행처럼 늘어나는 것도 이상의 이유에서 일 것이며, 서양문명의 풍조는 최근 유형무형으로 국내에 만연하여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민들, 특히 상류사회의 인민은 서로가 경쟁이라도 하듯 서양문화의 주의를 체현하려 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물론 여기에는 기독교를 가까이 함으로써 더욱 그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又新」은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와 미야케 세츠레이(三宅雪嶺)등 政教社의 잡지인 「日本人」의 '국수보존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즉 사회전체의 문명개화를 주창하는 「又新」에게 있어서 '국수보존주의'는 단지 이와 대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³²⁾

한편 「又新」은 개항장이자 근대 도시에 걸맞은 '사회개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기를 외국인인 내지잡거에서 구했다. 그러나 이노우에와 그 뒤를 이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외상이 추진 중이던 조약개정교섭이 중지되자 내지잡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개하려 했던 사회개량의 기운도 진정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³³⁾

그러나 「又新」은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내지잡거 준비를 서둘러야만 하는 새로운 이유를 제시했다. 즉 외국인이 '엄격한 현행조약 하에서도 교묘하게 조약을 이용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제조소를 건설하거나 혹은 은밀히 내지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후일 조약이 개정되어 거주, 여행, 영업 등이 자유로워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30) 위와 같음

31) 1888년 3월 18일?23일?24일의 세 차례에 걸쳐 연재된 사실「西教傳播の事 附宗教社會の人に望む」.

32) 「又新」은 1888년 5월 18일의 사실「社會進歩の有様」에서 창간된 지 얼마 안되는 「니혼진」을 평하면서 '국수보존주의'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양이주의(攘夷主義)라 비판했으며, 동년 6월 10일의 사실「日本の國粹は貴族的なり」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국수보존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又新」은 「니혼진」의 1호에서 4호까지를 「니혼진」이 주장하는 '국수보존주의'는 '봉건제도하에 발달한 귀족적인 것이므로 평민 사회에 일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又新」에 의하면 '세계에 걸출한 미술'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부인복'도 주택에 깃들여 있는 장인정신도 모두 도쿠가와(德川) 삼백년의 무사태평한 날들 속에서 발전한 귀족적인 사회에 적합한 것이며, 현재의 평민 사회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존'할 만한 것이 아님을 피력하고 있다.

것이였다. 이제껏 사회개량론이 문명 도시 고베와 일본의 국제적 체면을 중심으로 논해졌던 것에 비하여, 이제는 내지잡거에 의한 외국자본의 침입이라는 경제적인 위기감을 전면 에 표출시켰던 것이다. 특히 개항장 고베가 속해 있는 효고현은 외국인들이 활거하는 요충지가 되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又新」은 사회적 문명론에 기인한 사회적인 문명개화라는 논조에서 조약개정을 계기로 하는 국민규모의 정치적인 주체 육성론으로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³⁴⁾

5. '아시아'에 대한 인식 -결론에 대신하여-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又新」의 청국(인)에 대한 인식에는 서로 상반된 것이 교착되어 동시에 병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당시 일본의 언론에 공통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종래의 연구는 이를 문명개화에 대한 일본의 자기평가 여하에 주목하여 '경박한 표면개화'라는 식의 반성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부하는가를 가지고서 이상의 이중적인 인식구조를 논해 왔다.³⁵⁾ 그러나 적어도 고베의 경우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라는 청국(인)에 대한 '공포감'이 고베시민의 민족적인 감수성을 자극한데서 멸시의식이 형성되어 이중적인 청국(인)관을 보였던 것이다. 한편 위협적인 경쟁상대로 인식되었던 청국(인)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又新」은 사회적 문명론에 기인한 사회개량을 내지잡거를 매개로 전개하던 것을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대항 주체를 육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그러면 「又新」의 대외인식 중에 '아시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던 것일까. 물론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대외인식의 핵은 하나는 서구였으며, 또 하나는 경제적·군사적인 경쟁상대로 강렬하게 인식되었던 청국(인)이었다. 「又新」이 청국(인)과 대항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사회전반에 서구화를 철저화 해 나간다는 노선을 취하는 이상, 거기서 인식의 기축을 이루게 되는 것은 청일관계와 청일 양자에 대치되는 서구열강이었다. 서구열강에 대치하는 것으로 일본·청국·조선을 파악하는 경우 거기서 3자는 '아시아'로는 표현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동양(東洋)'으로 표현되었다. 청국과 일본을 구별하지 않는 서구열강의 사고를 의식한 「又新」은 일본이 청국과는 다른 '동양의 극단'에 존재하는 국가임을 서구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동양'은 단순한 지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

33) 내지잡거와 연동된 고베시의 시구개정론(市區改正論)=사회개량론은 주로 도시의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체제를 고쳐 나가려는데 주안이 두어졌다. 개항장 고베의 모습은 곧 일본의 문명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국가 전반의 국제적인 체면과 관계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조약개정이라는 당시의 국제적인 계기와 지역사회의 재편성의 밀접한 연관성에 관해서는 이미 좋고 「近代 日本의 社會的 差別構造의 形成과 疾病」(『日語日文學』제 8집, 1997, 11)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

34) 내지잡거와 함께 다량의 외국인 자본과 뛰어난 경영기술 등이 내지로 들어와 상수도·철도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하되어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고베시 차원의 정치적 대응 등에 관해서는 이미 좋고 「條約改正と地域の政治動向-神戸市を中心に」(神戸大學大学院修士論文, 1991년)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

35) 앞의 책 「對外觀」, p.257

는 것이 아니라 서구열강='서양(西洋)'에 대치되는 형태로 생성된 자기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청일간의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면 할수록 '동양'속에서 차지하는 '약소국'조선의 위치는 점차 축소되어 감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 결과 「又新」의 기사 속에서 조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又新」은 일본의 위치를 '아시아의 동단에 부속된 가늘고도 긴 고도'라 표현³⁶⁾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아시아'라는 개념은 단지 지리적 구별 이외의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의 다른 부분에서는 '언제나 러시아는 동양의 토지를 노리고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자기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에는 여전히 '동양'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6년 2월에는 8회에 걸쳐서 슈타인(Stein, Lorenz von)의 식민지론을 「동부아시아이주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시아'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아시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본을 '아시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동양'과 '아시아'라는 개념의 사용방법은 물론 「又新」만이 가지는 특질은 아니었으며, 이 시기의 일반적인 사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의 유력 신문인 「大阪日報」에서도 '동양의 일원으로서 치욕을 당하며 존재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예리한 진리라는 무기를 들고 서구열강과 함께 개명천지를 경쟁할 것을 바라는가'³⁷⁾하고 주장한데서 '동양'의 사용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비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脫亞論」은 일핏 보기에 '아시아'를 '서양'에 대비하는 자기인식에 관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쿠자와가 "서양문명의 눈으로 본다면 3국의 지리가 서로 접하고 있으므로 때로는 이를 동일시하며 지나와 조선을 평하는 선에서 우리 일본을 접하는 일이 없지 않다."³⁸⁾고 주장한 것은 단지 지리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 있으므로 인하여 조선·청국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음을 피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일본이 정신적으로는 이미 '문명'이라는 서양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단지 지정학적인 관계로 일본까지 '아시아'라는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숨겨진 자신의 모습='아시아'를 철저히 '소외'시킴으로써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의 객관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³⁹⁾

그리고 '탈아'와 대립되는 '興亞'라는 개념은 "일본은 인근국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일으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아시아'를 일으

36) 1886년 10월 1일 사실 「地理上の思想を養ふへし」. 이는 세계의 지리를 앞으로 비굴하고 좁기만 한 일본인의 심성을 고양하고, 사회개량을 위해서는 지리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논지이다. 여기서는 일본이 동양의 일원이라는 자기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37) 「大阪日報」1886년 1월 3일자 사실 「更に進んで我社會を一新せよ」

38) 「福澤諭吉全集」제 10권, pp.238-242(岩波書店, 1960년).

39)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과 오리엔탈리즘에 관해서는 姜尙中「福澤諭吉-文明論とオリエンタリズム」(歴史學硏究會「近代」人をどう考えていたのか」講座世界史7, 東京大學出版會, 1996년)을 참조 바람.

킨다는 것은 일본을 지리적인 공간인 '아시아'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공통성을 지니는 주체적인 것으로 새로이 창출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그 저의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문명개화한 일본과 '미개'의 이웃인 조선과 청국을 구분하고,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는 이웃을 대표해야 한다는 도착적인 자부심의 발로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又新」역시도 이러한 '홍아'와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아시아'라는 말을 지리적 범위 이외에 확대하여 사용한 예가 하나 있다. 이는 「又新」이 노선을 변경하고 난 이후의 일로 1890년 6월에 내항한 터키 사절에 관한 기사에서이다.

아시아에서 침입한 불과 십여 명의 용자들이 유럽에 건국한 터어키는 그 후 국운이 융성하여 한 때는 유럽전토를 병합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으나, 실패하여 오늘날의 형세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원래 일본인과 같은 아시아 인종으로 서구인들보다는 일본인들과 더욱 친근한 경향이 있다. 특히 일본의 문명은 개국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만세일계의 천황폐하 아래 국내에는 이를 어지럽히는 신화와 인민이 없는 일종의 특별한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인은 이를 보려는 바램에서 군함의 세계 만유를 겸해 내항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면에서 온 객을 예와 후의를 다하여 맞이해야 할 것이다.⁴⁰⁾

여기서 '아시아 인종'이라는 단어는 일본인·터키인 양자의 공통되는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일한 사례이며, 「又新」이 '아시아'를 주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동양'으로 인식되는 청국·조선을 제외한 아시아 제국을 자기와 공통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들 국가에 대한 언설은 찾아보기 힘들며, 관계되는 기사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又新」에게 있어서 '아시아'는 자기를 포함하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그 개념이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이상에서 본 청국(인)='비굴' '무법' '난폭' '불결' '교활' '도박' '아편' '부도덕' '무능' '부패' '야만' '미개' 등 열성(劣性)이미지의 전형은 그 속국으로 인식되었던 조선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으며 점차 편견된 '아시아'인식을 환기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는 곧 일본과 무관한 '아시아(인)'의 고유한 본성으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고베의 '아시아'인식은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아시아인 청국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되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항장 고베라는 특수한 공간에 한정되는 것으로 당시 일본의 보편적인 인식의 전개과정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여타의 개항장과 개시(開市)등은 물론, 일상적으로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극히 드문 지역의 '아시아'인식에 관해서도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0 1890년 6월 20일자 「土耳其使節のもたらしたる物品と渡來の目的」

〈 도 표 〉

〈표-1〉 고베항의 무역액이 전국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국명	1873년	1889년	1892년	1896년
청 국	21	37	42	61
조 선	-	46	6	39
인 도	-	68	66	69
홍 콩	-	44	54	54
필리핀	-	불명	15	19
오스트리아	-	35	3	16
벨기에	-	22	26	38
프랑스	-	11	8	17
독 일	36	44	46	41
영 국	19	40	41	39
네덜란드	-	28	24	40
이태리	-	31	4	4
스페인	-	5	1	29
미 국	17	20	19	33
캐나다	-	39	33	41
호 주	-	불명	78	66
하와이	-	불명	불명	47
비율	17	33	33	42

주)村田誠治「神戸開港三十年史(下卷)」(神戸開港三十年紀念會, 1898년)을 참조하여 작성.
그리고 무역액은 수출입 합계를 말하는 것임.

〈표-2〉 고베 거류 외국인 수

(단위: 명)

연도	거류인 총계	내역(상위 5개국)				
		청국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1873	불명	207	210	39	42	0
1878	1,016	619	230	53	50	11
1879	1,006	617	226	58	50	10
1880	858	517	194	63	42	10
1881	948	547	238	56	53	12
1882	991	692	173	28	41	14
1883	999	594	239	56	52	12
1884	876	505	225	42	52	12
1885	903	630	144	37	42	12
1886	844	560	144	42	43	20
1887	893	597	139	29	66	25
1888	1,040	732	150	33	66	27
1889	1,426	887	261	79	88	47
1890	2,039	1,432	310	87	87	59
1891	1,539	913	310	90	92	64
1892	1,924	1,033	351	80	142	91
1893	1,768	1,004	351	102	177	39

주)村田誠治「神戸開港三十年史(下卷)」(神戸開港三十年紀念會, 1898년)을 참조하여 작성.

〈표-3〉 고베항의 국가별 무역액 (단위: 천엔)

국명	1873년		1889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청국	514	2,613	1,868	3,611
조선	-	-	544	546
인도	-	3	745	5,127
홍콩	-	-	3,634	1,379
필리핀	-	-	-	17
오스트리아	0.8	5	126	1
벨기에	-	-	52	157
프랑스	4	363	800	1,161
독일	24	792	1,208	1,672
영국	866	2,357	4,887	9,559
네덜란드	13	22	10	1
이태리	0.5	-	339	33
스페인	-	5	2	44
미국	784	133	4,140	2,243
캐나다	-	-	353	1
호주	-	-	-	396
하와이	-	-	0.6	-

주) 村田誠治『神戸開港三十年史(下巻)』(神戸開港三十年紀念會, 1898年)을 참조하여 작성. '-' 표시는 무역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임.

〈日本語要旨〉

近代日本の開港場の中の一つであった神戸港には、外國人居留地のみならず、日本人と混住する外國人雜居地が存在していた。神戸港は、他の開港場と比べ對アジア貿易の比重が最も高いことから、アジアとの關係は密接である。そのため開港場という特殊な空間であった神戸での住民たちの西洋と東洋(特に清國)との直接・間接的な交流は日常的なこととなる。そこで形成される認識は、當然、當時の日本全般の認識とは異なってくる。

生活の中で清國人とぶつかり合うのが日常茶飯事であった神戸港の言論(『又新』)に現れる對外認識の核は、一つは西歐で、また一つは經濟的・軍事的な競争の相手として強烈に認識された清國(人)であった。そして認識は、清國(人)に對抗する形態をとりながら、社會全般に西歐化=文明化を徹底していくことへと傾く。その課程の中で、日常から確認される清國(人)=卑屈、亂暴、不潔、恐喝、バクチ、阿片、不道德、無能、腐敗、野蠻、未開などの劣等なイメージの典型が作られる。それはまた、清國の屬國であった朝鮮にも例外なく適應されることとなり、だんだん偏見的なアジア認識を喚起させる結果となる。

これまでの研究は、近代日本が「一流帝國主義國」である西歐に對する、「小型帝國主義國」という劣等感と、その對極で生じる「開花日本」こそが東アジアの盟主となれるという認識で朝鮮と清國に對する強い輕蔑意識を生み、また定着させてい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しかし、その具體的な展開過程の中身や實體はほぼわかっていない。また、近代の開港場という特殊な空間でのアジア認識を見る限り、日本全體の普遍的なそれと一般化するにはいささか無理を感じる。これからは、むしろ當時、外國(人)、アジア(人)との接する機會が比較的になかった地域の認識の展開過程に關しても今後検討されるべきである。